

# 탈레반 아프간 장악에 알카에다 환호

### “이슬람은 승리했다” 축하 메시지 IS 등 과격단체 대거 카탈 입성 美, 알카에다 부활 빨라질지 촉각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가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재장악에 환호하고 있다. 20년 전 9·11 테러의 아픔을 겪었던 미국은 알카에다가 2년 안에 다시 미 본토에 위협이 될 수준으로 부활할 수 있다고 보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소셜미디어에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을 축하하는 글을 많이 올리고 있다며 알카에다 등 테러 단체들의 부활 우려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친 알카에다 매체의 계정에는 전날 탈레반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며 이번 승리를 축하하는 메시지가 올라왔다. 이 메시지는 “아프가니스탄이 정복됐고, 이슬람은 승리했다”라고 번역된다고 테러 감시단체인 ‘SITE’ 인텔리전스그룹이 밝혔다.

1990년대부터 아프간을 은신처로 삼아 9·11 테러 등을 자행한 알카에다는 오사마 빈라덴 등 지도부 대다수가 미군의 급습과 드론 공격으로 제거된 이후 세력이 약화해 지역 조직으로 전락한 상태.

주로 이란에 숨어있던 알카에다는 탈레반이 아프간을 재장악하기 전부터 미군 철수를 기뻐하며 주요 직원들을 아프간에 다시 보내고 있다고 전직 미 중앙정보국(CIA) 베테랑인 더글러스 런던이 밝혔다.

게다가 미군 기지 등에 수감됐던 알카에다와 그 연계조직의 핵심 인사들이 지난 주말 탈레반에 의해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미 정보당국은 미군 철수 후 알카에다의 핵심 그룹이 미 본토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복원하는 데 18~24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러한 예상 기간을 재평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현직 관리들이 WSJ에 전했다. 알카에다의

부활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알카에다와 달리 IS 잔당에 대해서는 탈레반이 어떤 접근법을 취할지 불투명하다.

이달 초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는 IS와 탈레반이 정치적 이념 차이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탈레반의 승리가 IS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 언론은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IS 대원 등이 이미 수도 카불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더힌두에 따르면 IS, 자이시-에-무함마드(JeM), 라슈카르-에-타이바(LeT) 등 이슬람 과격 단체의 많은 대원이 지난 며칠 동안 카불로 들어섰다.

더힌두는 “탈레반 지도부도 이에 대해 알고 있다”며 “이들 단체는 탈레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카불 내 다른 곳에서 활동을 벌일 것으로 보

인다”고 밝혔다. 이어 “탈레반이 이들을 물리적으로 몰아내려 한다면 이들 단체 간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4~2015년부터 아프간에 본격 진출한 IS는 현재 ‘IS 호라산 지부’를 만드는 등 존재감을 과시해왔다. 2019년 8월 카불 서부 결혼식장에서 자살폭탄테러를 감행 63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지난해 11월 카불대에서도 총격 테러를 주도해 20여명을 숨지게 했다. IS와 탈레반 모두 이슬람 수니파 계열이지만 IS는 시아파를 배교자로 삼아 처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간 탈레반과 종종 대립해왔다.

JeM은 2019년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서 자살폭탄테러를 자행, 인도 경찰 4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조직이다. 조직의 리더 마수드 아자르는 유엔(UN) 테러리스트 명단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17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 대변인인 자비훌라 무자히드(가운데)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탈레반은 아프간을 장악한 후 이날 가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아프간 전쟁이 종료됐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슬람법의 틀 안에서 여성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변화의지를 드러냈다. /연합뉴스



강진 이어 열대성 폭풍 겪은 아이티 이재민 강진 피해가 발생한 아이티 레카이에서 17일(현지시간) 오전 이재민 아이들이 열대성 폭풍 ‘그레이스’로 인한 비를 피하고자 비닐로 몸을 감싸고 있다. 지난 14일 발생한 규모 7.2 강진에 이어 16일 밤과 17일 오전 사이 ‘그레이스’로 인해 많은 비가 쏟아졌다. 일부 지역에는 홍수가 발생해 지진 구조 작업도 잠시 중단됐다. /연합뉴스

## “미얀마 살해된 민간인 1000명 넘어”

### 군부 쿠데타 200일

### 인권단체 AAPP 공식 집계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200일 가까이 지난 가운데 1000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18일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에 따르면 이틀전 기준으로 군경에 의해 998명이 숨지고 5711명이 구금됐다. AAPP 관계자는 현지매체인 이라와디에 “이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수치며, 실제 사망자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언론도 지난 2월 1일 발생한 군부 쿠데타 이후 군경의 총격과 고문 등에 의해 살해된 민간인은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달에만 학생 저항운동가, 시위 참가자, 민주주의민족동맹(NLD) 당원 및 가족, 행인, 지역 주민 등 92명이 군경에 의해 사망했다. 미얀마 중부 사가인 까니 지역에서는 미얀마군에 의해 살해

된 희생자들의 시신 40구가 발견됐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미얀마군은 지난달 9일부터 이틀간 해당 지역에서 16명을 고문하고 살해했다. 이어 같은 달 26일 정부군과 무장단체가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13명이, 이를 뒤 14세 소년을 비롯한 11명이 추가로 미얀마군에 희생됐다. 특히 군경에 체포돼 구금된 상황에서 고문으로 숨진 사망자는 지난 한달 반 동안 적어도 10명에 이른다.

지난 6월 29일 바고 지역에서 공공 건물을 파손한 혐의로 체포된 35세의 소민은 감옥에서 고문으로 숨졌다. 당시 그의 시신에는 멍 자국 등 고문을 받은 흔적이 군대군데 남아 있었다.

이와 함께 미얀마 군부가 교도소에 수감된 저항 세력 인사들을 의도적으로 코로나19에 노출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이라와디는 전했다.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측근인 난 윈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중앙집행위원 등은 교도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 돈 싣고 도망간 아프간 대통령, 그 딸은 뉴욕서 예술가로 생활

### 영화제작자로 여유로운 생활

### SNS “아프간 가족, 생각하면 슬퍼”

###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없어

탈레반이 쳐들어오자 국민을 버려둔 채 거액의 현금을 싣고 해외로 도피한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의 딸이 미국에서 예술가와 영화제작자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가니 전 대통령의 딸 마리암 가니(42)가 뉴욕에서 비주요 아티스트이자 영화 제작자로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

뉴욕포스트는 브루클린에 사는 마리암의 고급

주택을 찾아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그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가니 전 대통령은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자 지난 16일 헬기에 현금을 가득 싣어 국외로 도피했다.

그가 급작스럽게 도피하면서 원활한 정권 이양과 관련한 협상이 어려워졌고 탈레반의 귀환으로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을 뒤로한 채 떠났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마리암은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 후인 지난 16일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에 “아프간에 남겨진 가족, 친구와 동료들을 생각하면 슬프고 두렵기도 하며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 정부 관리들에게 서한을 보내거나 난민을 돕는 단체에 기부하는 등 아프간 주민들을 돕는

방법을 언급했다. 아프간 여성들이 겪을 곤경이나 아버지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최근에도 아버지의 행보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은 없었다.

마리암이 아버지로부터 소식을 들었다거나 그의 행방을 알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매체는 전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출생한 마리암은 아버지와 레바논계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메릴랜드에서 자랐다. 이후 뉴욕대학교와 비주얼아트 대학교(SVA)에서 공부했고, 아버지가 2002년부터 아프간 정부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쯤 아티스트로서 경력을 쌓아나갔다.

이후 그의 작품은 뉴욕 현대 미술관이나 구겐하임 미술관, 영국 테이트모던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에 전시됐다. 2018년에는 버몬트주 베닝턴대 교수진으로 합류했다. /연합뉴스

## 델타 확산에 미국 어린이 코로나 감염자 늘어

### 접종 자격 없는 11세 미만

미국에 전염성 강한 인도발(發)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아직 백신을 맞을 자격이 없는 어린이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소아과학회(AAP)는 지난 5~12일 미국에서 보고된 어린이·청소년 코로나19 확진자가 12만1427명으로 집계됐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전체 확진자의 18%에 해당한다.

미국에서 어린이 코로나19 감염자는 전체 감염자 추이를 따라 올해 초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7월 초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

AAP는 어린이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미국에서는 12세 이

상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자격이 주어질 상황이다. 11세 미만 어린이들은 아직 백신을 접종할 수 없다.

AAP에 따르면 미국의 누적 어린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금까지 441만3000여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4.4%를 차지했다. 입원 환자 중 어린이 환자를 구분해 보고하는 곳은 50개 주 가운데 23곳과 뉴욕시뿐인데 이곳에서 전체 입원자 중 어린이의 비중은 1.6~3.5%의 분포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약 1년 반 만에 대면수업을 재개한 미국 초·중·고교는 진통을 앓고 있다. 일례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교육구에서는 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면서 3000명이 넘는 학생·교직원들이 격리 상태에 들어갔다. 이는 전체 학생·교사의 5.9%다. /연합뉴스

#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의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